

# 사찰별 방재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집중기획 국보1호 승례문 전소**  
**사찰 목조문화재는 안전하나**

# 3월 5일 새벽 3시, 충청도 ○○사찰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범종각 내에서 최초 발생한 화재는 열감지기에 의해 인근 소방서로 자동 신고됐고, 동시에 경내에 화재경보가 울렸다. 주지스님 이하 대중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재난시 입무카드'를 꺼내 확인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A 스님은 소화전으로 뛰어가고, B 스님은 경내 외곽의 방화수 탱크로 달려갔다. C 스님은 소화기를 들었고, E 처사는 소화기 용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 다른 전각의 소화기 여분을 범종각 인근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화재 장소를 확인한 방재대장은 매뉴얼에 따라 화재 진압 지휘를 하며 배치된 인원을 점검했다. 확인해보니 D 스님이 없었다. 주지스님이 방재 매뉴얼 조적도에 따라 대대 인력을 알아본던 순간, 외부 연락을 담당하던 F 처사가 D 스님의 임무를 위해 법당으로 달려왔다. 10여분 후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화재는 진압 마무리 단계였고 다행히 범당은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 물론 방화용의자는 며칠 후 녹화된 CCTV를 증거로 검거됐다.

방재 교육과 방재 설비 그리고 방재 매뉴얼 모두가 완벽하게 갖춰진 때를 가정한 예다. 현재 이와 같이 방재에 나설 수 있는 사찰은 몇 곳이나 될까? 분지 확인 결과 개별 방재 매뉴얼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동안 국가나 종단 차원에서 방재 매뉴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이 발간한 <2006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보고서>에는 종단차원에서 준비된 방재 매뉴얼이 있지만 시안일 뿐 실제 화재 발생시 별 도움이 못된다.

2005년 12월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화재 위기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중요건조물문화재, 사적지 내 문화재, 동산문화재 등의 화재 시 활용하도록 제공했다. 산중 사찰의 산불 피해를 막고자 산불재난에 대해서도 별도의 매뉴얼을 제공했지만,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매뉴얼도 정작 화재 시 아무 쓸모가 없다.

문화재청 매뉴얼에는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뒤 침착한 소화 활동을 통해 주요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등의 상식적인 문구와, '화점(火点)에 접근 시 낮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등의 일반적 지침만 나와있다. 목조건축물에 맞춰 발화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의 실제 화재 시 필요한 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4일 문화재청이 향후 2년 안에 목조문화재 124곳에 대한 첨단방재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소방 당국 등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실측도면 등 문화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나섰다. 방재 매뉴얼 작성은 왜 필요할까?

일소재도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방재 매뉴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미국의 경우 조지 구성원의 책임 및 단계별 행동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황별 대응방안보다 진행단계별 스텝의 역할을 위주로 정리했다. 일본은 시나리오 별로 개인 행동요령이 상세히 논의돼 위급시 매뉴얼만 갖고도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우선이다. 김봉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사찰 방재 매뉴얼은 전체 사찰에 대한 정밀실사 후 개별 사찰 특성을 감안한 유형별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매뉴얼에는 정밀실사 후 실측도면, 평상시 방재설비 설치 규정과 문화재 책임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방재훈련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위급상황을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위원(문화재위원회, 전 동국대 교수)은 "사찰 방재 매뉴얼의 행동요령은 예방과 초기진화, 방재설비는 건축물 특성을 감안해 소방약제와 소방기구 선택으로 나눠 정리하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승례문 참사 이후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사찰 상황에 맞는 방재 매뉴얼을 만들고, 화재 시 현장을 지휘할 총책임자를 두고 평상시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승례문은 갖지 못했던 관리법령·전문가·매뉴얼을 전국 사찰들은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을까? **조동섭 기자**

## 2005년에 만든 매뉴얼 실제 화재시 도움 안돼

## 사찰별 특성 감안한 유형별 매뉴얼 만들어야

매뉴얼은 특정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아놓은 책자다.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방재 매뉴얼을 작성하면 평상시 방재설비 구축, 방재훈련 등 준비는 물론 위급시 대처 원칙을 정할 수 있다. 매뉴얼을 따라 소신 있는 행동도 가능하며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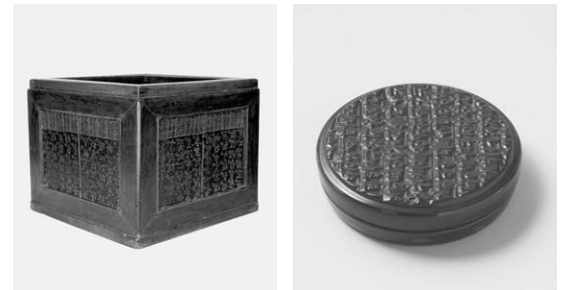
했다. 전문가들은 매뉴얼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과 같이 행동을 규정해야겠지만 차츰 미국처럼 단계별 스텝의 역할을 명시해 규정보다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사찰 방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찰 정밀실사가

## 일본 화로 장식으로 훼손된 우리 문화재

한석학 스님, <한석봉 초서 천자문>, <유충렬전> 목판 공개

승례문 화재 참사는 문화재 보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온 국민이 문화재 보호를 외치는 가운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목판이 일 본인의 완상용 소품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식 화로로 장식된 <한석봉 초서 천자문>(왼쪽)과 분첩이 된 <유충렬전> 목판.

2월 27일 공개된 2개의 목판 작품은 모두 원형이 아니었다. 구한말 1899년(광무 3년) 원산(전주)에서 제작된 <한석봉 초서 천자문> 목판 4장은 일본식 소형 4각 화로인 '이로리' (41×41×34cm)의 외곽장식 용구로, 한글소설 <유충렬전>의 목판 원판은 원형으로 재가공돼 일본 여인의 분첩(10.5×10.5×2.5cm)이 돼 있었다.

<한석봉 초서 천자문> <유충렬전>을 공개한 이는 고판화 수집 전문가인 한석학 스님(원주 명주사 주지)이다. 군승 장교 출신인 스님은 평소 판화에 관심이 있어 수집했고, 수집품들을 모아 2004년 명주사에 고판화 박물관을 개관한 판화 전문가이다.

일본식 화로로 변형된 '오 문행실도목판'을 2년 전 공개하기도 했던 스님은 그 후로도 한국 목판 문화재가 장식으로 일본에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국내 및 일본의 고미술상을 뒤지다 공개한 유물을 입수했다고 한다.

한석학 스님은 "궁중판이나 사찰본 등과 달리 판매용으로 제작됐던 방각본의 보존은 부실했다. <한석봉 초서 천자문> 목판은 방각본으로 최초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함께 발견된 <유충렬전> 목판도 기존 발굴됐던 <삼국지> 목판 원판 1장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에 대해 학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남권희 교수(경북대 문헌정보학과)는 "조선 후기 방각본 출판으로 유명한 전주지역에서 제작된 목판으로 지역사적, 서예사·판각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유물 공개로 승례문 참사와 더불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책은 물론 사회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조동섭 기자**

## 격식 없는 불교적 현실 이해의 장 마련돼

### 불교월례포럼 간화선 주제로 첫 모임

화회에서 나누기엔 다양한 말, 한담으로 흘러기엔 담고 싶은 말들을 한자리에 할 수는 없을까? 신규탁 교수(연세대, 홍사성 위원(불교평론 편집위원), 윤정화 사장(민족사) 등 교계 재가인물들이 뜻을 모아 '불교월요포럼'을 만들었다. 첫 모임은 2월 25일 청진동 개매 미온

동맹이'에서 간화선을 주제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은 '간화선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주제 발표를 통해 "중생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국불교의 선수행 실태를 비판했다.

윤정화 사장 등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법은 없고 사람만 남은 한국불교가 문제

다" 등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포럼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실점이 부족한 참석자들이 나는 이야기라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재가자들 사이에서 한국불교의 비전을 논하는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월요포럼은 매월 1회 견지동 인근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음 포럼은 3월 17일 오후 12시 청진동에



토론회중인 성본 스님(오른쪽)과 홍사성 위원.

위치한 개매 미온 동맹이에서 '불교의 선, 철학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 우리 학회는 |

(9)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 연구소

ebtc.dongguk.ac.kr

##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완료 가장 큰 성과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1997년 12월 불교학과, 선학과, 국어국문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전자불전 관련 학문의 여러 교수들 중심으로 '전자불전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현재의 명칭은 불교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수행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변경·사용됐다. 매년 수차례 학술세미나를 열고, 1회 학술지 <전자불전>을 발행해왔다.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불교 사이버 박물관 구축, 불교 디지털



2월 16일 대만에서 열린 전자불전학회 연합국제회의에 참석중인 보광 스님(가운데), 황순일 교수(왼쪽), 이재수 교수.

및 도서관 구축 등 전자불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왔다. (02)2260-3504

#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 교육과정

#### 1. 49재 및 천도재 의식(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계 ● 다계작법

※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 포함  
※ 매주 수요일 13시

#### 2. 윤달대비 생전 예수재 의식

※ 매주 수요일 17시 30분

### 준비물

녹음기, 필기도구

### 개강일

2008년 3월 26일

## 송강 범음 · 범패 전문강원

●원장: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륵당 011-258-0314

#### 3. 상주권공재 의식

※ 매주 수요일 16시

#### 4. 매화역수 사주학과과정(6개월 과정)

(강사: 도연스님)  
※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 녹화, 촬영 절대 금지.

◆ 본광고는 연 2회 게재합니다.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 ◇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 문의 및 접수처: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충북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